

규창 葵窓 이건 李健 「제주풍토기 濟州風土記」의 교육적 의미

김유리*

1. 서론
2. 규창 이건의 제주유배와 「제주풍토기」
3.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4.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보기 위해 기록이 갖고 있는 교육적 구조와 층위를 살펴보았다. 이건은 왕도정치 실현을 국시로 삼고 있던 조선에서 종실 자제를 위한 교육을 받은 인물로 제주도 유배 당시의 풍토와 상황을 관찰 기록한 「제주풍토기」를 남기게 된다. 그가 유배를 당시 제주도는 성리학적 영향력이 미흡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건은 「제주풍토기」를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교육 의지를

* 김유리, 제주대학교

개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풍토기』에는 17세기 제주도의 상황을 사회·교육적·기술교육적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드러나 있다. 이처럼 『제주풍토기』를 통한 당시 제주도의 풍토와 교육적 모습에 대한 이해는 제주교육의 정체성 이해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규창 이건, 제주유배, 『제주풍토기』, 사회교육적, 기술교육적

1. 서론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최악의 유배지로 260여 명이 넘는 유배인들이 다녀갔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과 더불어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자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의 문화와 많은 부분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교육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유배를 온 사람들이나 제주에 내려온 관인들의 힘이 컸다. 그들 중 특히 유배인들은 유배라는 고난의 기간을 오히려 자기완성의 시간으로 승화시켜 값진 저술을 남긴 경우가 많다. 그러한 많은 기록들 가운데 풍토지는 단 2편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가 바로 그것이다.¹⁾

원래 이러한 풍토지는 대개 조선시대 각종의 관찬읍지에 많이 나타난다. 그 편찬의 의도는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자의 편의성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목적에 제공되었다.²⁾ 그러나 충암 김정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지는 개인의 실제 체험을 토대로 당시 제주의 풍토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1)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탐라문화연구소, 2012), 8쪽.

2) 김유리, 위의 논문, 8쪽.

본고에서는 이견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대상으로 여기에 기록된 17세기 제주도의 풍토와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견은 비록 유배인이긴 하나 선조의 손자로 왕족이었다. 하여 조선통치의 철학을 공유하는 왕족으로서 그의 눈을 통해 본 제주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성리학의 영향력이 미흡했던 제주에 대한 인식과 계몽적 의지도 찾아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풍토와 그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당대 제주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 규창 이견의 제주유배와 「제주풍토기」

1) 규창 이견의 제주유배

「제주풍토기」를 쓴 이견은 광해군 6년에 나서 현종 3년(1614~1662)에 생을 마감했다. 이견의 자는 자강(自強)이고 규창(葵窓)은 호다. 할아버지는 선조이며 아버지는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다.

이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였던 인성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 인성군이 광해군 때 인목대비 폐위를 적극 지지한 바 있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 이귀(李貴)에 의해 무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제주로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1628년(인조 6) 인성군은 왕족이었지만 역모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인성군의 아들 삼형제와 가족은 제주도로 유배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견은 형 이길(李詰), 이억(李億) 등과 함께 제주도 정의현에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1633년(인조 11) 이귀가 죽자 1635년 제주오현 중 한 명인 동계 정온의 상소(인조 13년 을해 1635, 승정 8)³⁾로 무고였음이 밝혀지게 된다. 그리하여 인조의 배려로 1635년 제주도에서 올진으로 이배되고 1637

년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 후 이건은 『규창집』이라는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제주도 유배 당시의 풍토와 상황을 기록한 「제주풍토기」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제주풍토기」에서 이건은 유배인이었던 자신의 절망적이고 처절한 삶에 관해 기록하면서도 당시의 제주도 모습을 상세히 표현한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며,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더구나 서울과 고향의 소식은 꿈속에서 밖에 들을 길이 없다. 질병이 있을 때는 단지 죽기를 기다릴 뿐이요, 침과 약으로 치료할 방도가 없다. 이곳은 실로 나라가 정한 감옥이니 사람이 건딜 수 없는 곳이다.⁴⁾”라며 유배인으로서의 처절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절규에 가까운 유배인의 외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배형은 죄인을 멀리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정세 변화에 따라 이배되거나 해배되는 등 사면된 뒤 복권의 길이 열려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니면 정계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면 후에도 유배지에 정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제주풍토기」에서 이건은 비록 유배를 마치고 살아서 돌아갔으나 낯설었던 제주도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여 남기고 있다.

-
- 3) 仁祖 31卷, 13年(1635 乙亥/명 승정(崇禎) 8年) 5月 2日(辛亥) 1번째 기사. “臣聞人窮反本, 張必有弛 竊逐諸人之樂魅四裔者, 今已十餘年, 茲當大霽之日, 或移、或放, 實合於得張弛之道, 而兩司之臣, 旋復論之, 不已甚乎 嗚呼 在凡人尙然, 況於至親之間乎 佶、億、健三人, 乃先王血孫也 流放海島, 今幾年矣 壯者已衰, 幼者已壯, 男而未娶, 女而未嫁 噫! 嗇矣其男, 哀此年壯之女, 其終閉死於鮫人、龍戶之鄉乎 殿下仰瞻先王之至意, 俯憐骨肉之殞命, 特命放赦, 以盡親親之道, 爲臺臣者, 所當將順, 以成吾君之美也.”
- 4) 李健, 『濟州風土記』, 양진건 엮음, 『제주유배문학자료집(Ⅰ)』(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84쪽. “最苦者粟飯也最畏者蛇蝎也最悲者波聲也以至於日下之消息, 鄉關之音信付之夢魂之外無路可聞 疾病之來 只自束手待死 無以致鍼藥之方 此實通國之罪地 人所不堪之處”

탐라는 통국의 죄지罪地요, 유찬流竄은 방가邦家の 중전重典이다. 십년의 세월은 가장 오랜 것이고, 불녕不佞은 사람 중에 가장 약한 것이다. 사람 중에 가장 약한 몸이 귀양살이의 중전을 입어 탐라 죄지에 유적되었다가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어부의 장葬을 면하여 연곡鞞의 하에 생환하여 중반宗班의 뒤에 중직하고 태평의 세를 좌도하게 됨은 이는 상조생성聖朝生成의 은혜와 조선祖先의 적선지경積善之慶이 아님이 없으니 깊은 밤 잠꼬대에서도 고마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모든 나의 자손은 체념하여 세세대대로 충효와 절節을 힘써야 한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역모를 꾀 했다는 죄로 아버지는 자살을 강요받아 죽고 자신은 최악의 유배지 제주도에서 십년이나 살다가 죽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또한 이견은 제주로 유배 왔을 당시 겨우 지학志學의 나이였다. 하여 그는 살아서 돌아가는 현실이 무척 기적과 같은 느낌이었고 조상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충효와 절節에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는 1657년(효종 8)에는 해원군海原君의 군호를 받았다. 성품이 건실하고 사치와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조그만 서실을 마련하여 경적經籍에 침잠하면서 시를 짓고 글씨와 그림에 힘쓰니, 사람들이 삼절三節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2) 「제주풍토기」의 서지학적 형식

「제주풍토기」는 이견이 제주 유배를 시작 한 1628년부터 1635년 울진으로 이배되기 전까지 17세기 제주도의 풍토 및 상황을 기록한 한문수필로 『규창집甝窓集』 권5에 수록되어 있다.

이견은 「제주풍토기」에서 유배지 제주의 풍토와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이것은 한 세기 전 제주 유배인이었던 충암 김경이 남긴 「제주풍토록」과 비교하여 제주의 풍토와 상황 변화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선 ‘풍토風土’란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로 자연환경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포함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전체를 말한다.⁵⁾ 어느 한 민족의 민족적 성격은 그 민족에게 주어진 환경을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하는 민족 성원의 공공양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환경이 역사적·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지리적·풍토적 조건도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을 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절해고도라는 제주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은 제주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곧, 풍토란 사람들에게 의식되어져 그 생활·문화·산업 등에 영향을 끼쳤거나 또 사람들에게 의해 가꾸어져 변화되어 가는 자연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갖가지 특색을 갖는다.⁶⁾ 이것은 인간의 역사적·풍토적 이중구조에 있어서 역사는 풍토적 역사이고 풍토는 역사적 풍토라 할 수도 있다.⁷⁾

이러한 풍토의 기록은 지방을 적은 서적이란 의미의 보통명사로 자연지리적 기술과 인문지리적 기술의 풍속기, 명승기, 명산명물기 등도 이에 해당한다. 혹은 일부의 지방의 적은 것도 풍토기지만 특정 주제사항에 대해 각 지방 일을 적은 것도 풍토기라고 불리어진다. 그리고 관찬, 공찬의 풍토기와 함께 개인이 집필한 사찬도 동일하게 풍토기라 할 수 있다.⁸⁾

이건의 『제주풍토기』는 다른 풍토지와 마찬가지로 제주지방의 사정을 기술한 점은 공통점이나 그것이 개인에 의한 사찬사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와 관련된 풍토에 관한 기록인 『제주풍토록』과 『제주풍토기』 중 여기서 살펴본 『제주풍토기』는 이건이 유배가 풀린 후 서울에서 유배시절을 회상하

5) 정인승, 『한국어대사전』(현문사, 1976), 1748쪽.

6) 양순필, 『李健의 제주풍토기 소고』(한국언어문학, 1980), 68쪽.

7) 和辻哲郎, 『風土』(岩波書店, 1935), 16쪽.

8) 秋本吉郎校注, 『風土記』(岩波書店, 1958), 7쪽.

며 쓴 기행문이라 할 수 있다. 이진은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 즉 유배생활에서의 체험이 중심이 되어 유배지라는 낯선 곳에서의 삶을 자조문학적 성격으로 세세히 표현하였다. 그래서 기행문 중 내용면으로 유배기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은 작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고난상이 승화되어 있어 감동을 준다. 『제주풍토기』에서 이진은 유배 당시의 고통을 회상하여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도 낯선 제주사람들의 모습에 여유를 느끼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절망감을 승화시키며 쓴 것이 아니라 이진이 이미 유배가 풀려 돌아가 조금이나마 심적 여유를 찾아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제주풍토기』에서 제주풍토와 풍속을 비롯해 그가 제주에서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 시대상을 증언하였다. 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도내 풍속의 하나인 뱀신앙, 제주도의 기후와 목축 상황과 목자의 고통, 농사의 경작상황, 제주도 여인들의 풍속, 제주산 굴 종류에 대한 설명, 잡녀의 풍속, 신당과 신사, 제주도의 동식물, 삼성신화, 김만일의 일화와 유배생활에서 겪은 작가 자신의 정신적 상황 등을 담고 있다.⁹⁾ 8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척박한 제주 자연 속에 보고 느낀 섬의 환경을 유배인의 시각으로 표면적이지만 섬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3.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제주로 왔던 유배인들은 유교적 교양에 바탕에 둔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제주에 남긴다. 특히 당시 출륙억제정책으로 막혀 있었던 제주에서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은 가장 큰 교육적 자극이 될 수 있었다.¹⁰⁾ 이런 점에서 이진이 남긴

9)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제주문화, 1992), 221쪽.

『제주풍토기』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상황을 중앙에 알리는 데에도 중요한 통로 역할도 특특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시로 삼고 유학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로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장수국가였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유학사상이 교육의 중심내용을 이루었고 왕실에서부터 일반 서민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유교가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그 장수의 주요한 요인에 성리학적 명분사회를 찾을 수 있는데 왕도 즉 명분과 의리를 밝혀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법치보다는 덕치를 우선하는 성리학적 통치 철학이 조선 왕조를 500년 이상 지속시킨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왕도정치와 덕치의 장에서는 교화를 통한 전 국민의 인간화 작업이 중요시하게 된다.¹¹⁾

왕도정치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그러한 왕과 기존의 질서에 순종해야한다. 유교정치 전체가 왕도정치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조선은 왕도정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나라였다. 즉 조선은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근본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았기에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성취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자를 비롯한 백성의 교육에 사용된 책들도 모두 유교의 기본정신을 담은 책이었다.¹²⁾ 또한 국왕의 자식 가운데 왕세자 이외의 왕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종친부의 작위를 받고 국가로부터 녹봉을 지급받았다. 마치 관료들처럼 대우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종실 자제들 교육의 목적은 그들의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유교적 자질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주풍토기』의 저자 이견 역시 선조의 손자였기에 종실 자제들을 위한 유교적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0)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1999), 521쪽.

11) 정옥자, 『우리선비』(현암사, 2002), 12쪽.

12)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98쪽.

13) 김문식·김정호, 위의 책, 201쪽.

여기에서는 유교적 교육을 받은 이진의 「제주풍토기」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 교육의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의 눈에 비친 제주도의 풍토와 삶의 모습을 사회교육적 측면과 기술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주도 교육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사회교육적 측면

조선왕조를 개창한 사대부정권은 그들이 수용한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질서의 확립에 부심하였다. 개국초기부터 적극적인 국가시책으로 광범위한 서민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건국자들에게 서민교화가 통치의 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서민교화 사업은 주대(周代)의 만민교육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교육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띠고 있었다.¹⁴⁾

그러나 이진이 유배를 온 17세기의 제주는 여전히 유교적 교화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곳이었으며 많은 부분에 풍속의 변화가 필요한 곳이었다. 「제주풍토기」에는 제주도내에 산재(散在)한 뱀에 대한 두려움과 제주도 풍속의 하나인 뱀신앙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섬 중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가 제일 무섭다. 겨울·여름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는데, 여름날이면 풀이 자라고 장습한 때면 규방(閨房)이나 집 처마나 마루 밑에서 자리 아래까지도 들어올 뿐 아니라, 어두운 밤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면 조심하여 피하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이 제일 무섭게 생각되는 것이다. 섬사람들은 큰 구렁이와 배암을 구별함이 없이 보기만 하면 이를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그에 빌며 이를 살해하는 바가 없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양화가 내려져 발꿈치를 움직이지 못하여 죽게 된다고 한다.¹⁵⁾

14) 양진건, 앞의 책, 147쪽.

이처럼 17세기의 제주도는 뱀을 부군신령이라 하며 쌀과 정수를 뿌리고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일면을 살펴보면 뱀신앙을 통해 재앙을 피해보고자 하는 제주도 민간신앙의 특별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당대의 제주교육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래의 무속신앙이 번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속의 문화가 유교적 교육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기 위해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보급에 진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일찍부터 체제의 제도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확충하였다.¹⁶⁾ 하여 조선은 지방교육의 대표적 기관으로 향교를 전국에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군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의 중심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이처럼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체제를 지지하게 할 교화정책도 아울러 펴 나갔다.¹⁷⁾ 그 일환으로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자 원년(1392)에 제주도에 학교를 세웠다.¹⁸⁾ 이것이 지방 향교로 가장 먼저 설립된 예였다. 이것은 조선의 대對제주도정책과 관련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했던 중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제주도는 여전히 무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일부 남성들을 상대로 유교교육이 전개되는 등 유교식 체계와 무속식 체계가 병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 충돌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15) 李健, 앞의 책, 78~79쪽. “島中可畏者 無過於蟒蛇 無論冬夏 到處有之 至於夏日草長瘴濕之時 閨房屋簷床底下 無不穿入 若是夜黑睡高之時則雖欲謹避 勢不可得 此是第一可畏者也 島人則勿論蟒蛇 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 灑而祈之 切不殺害 若或殺之 其人必有所殃 不旋踵死云.”

16) 양진건, 앞의 책, 75쪽.

17) 양진건, 앞의 책, 76쪽.

18) 『增補文獻備考』 권209, 學校考 8, 鄉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19) 양진건, 앞의 책, 77쪽.

사실이다.²⁰⁾

즉 외형적으로는 교육의 이중적 구조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쌍방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교육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주풍토기」에 나타난 제주도 무속에 대한 사회교육적 측면의 기록이다.

섬 중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일을 매우 부지런히 하므로 소위 신당이 곳곳에 있는데 남는 바깥에도 성황당이 있어 일명 광양당이라 하는데 섬사람들은 화복이 있으면 무릇 여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또 매우 영감이 있다고 한다. 또 신사로는 남문 밖 수풀 속에 각시당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이 신도 역시 매우 영험이 있다고 하여 섬 사람들이 매월삭망에 여기에 제사 지내며 장래의 길흉을 짐쳐 본다. 그 사람이 만일 재액이 없어 신이 그 제사를 잘 받으면 별다른 징조가 보이지 않으나 만일 그 사람들이 장차 재액이 있으려고 하거나 혹은 제사를 근설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신이 제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쥐보다 크고 광보다 작고 그 빛이 심한 노란 쥐떼가 암석 사이에서 나와 사람을 보아도 피하지 않고 진설한 주과를 모두 집어다가 먹으면서 왕래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관 무인은 장래에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을 알고 배교를 던지며 길흉을 말하는데 그 효험이 있다고 한다.²¹⁾

폐쇄된 사회일수록, 척박한 환경일수록 제주인들의 삶에 무속은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사람들의 삶이 황폐할수록 무속신앙 같은 것은 번창하기 마련인 것이다.

예부터 제주에는 ‘당 5백, 절 5백’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처럼 제주에는 신당

20) 양진건, 앞의 책, 199쪽.

21) 李健, 앞의 책, 87쪽. “島中之人 祀鬼神甚勤 故所謂神堂 處處有之 而南門外 有城隍堂在焉 名曰廣壤堂 島人凡有禍福 無不祈禱於此 頗有其靈云 又有神祠在於南門外叢薄之間 名曰閣氏堂 其神亦頗靈異 島人必以朔望來祀於此 以占將來之吉凶 其人若無災厄 而神享其祀 則別無所驗 其人若將有災厄 或神祀不謹 致有不潔 神不享其祀 則有大鼠數輩 大於鼠而少於獾 其色甚黃 自岩石間出來 見人不避 盡取所祀酒果而食之 往來不已 所主巫人 知其有將來之災患 擲杯而而言吉凶 累有其驗云.”

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제주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으레 곳을 벌였다. 일상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마음이 허하면 곳을 하고 뉘두리를 했던 것이다. 하여 '당 5백, 절 5백'의 고장이라 일컫듯 제주인의 삶에는 신을 모시는 일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다. 제주인들의 한을 다스리고 신명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 활발해진 유교의 보급과 강화로 신당숭배의 무속은 점차 그 위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교육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들에게서는 여전히 무속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유교교육이 보급되지 않은 여성사회에서는 재래의 무속신앙을 계승하여 그것에 의존하고 남성사회에서는 유교식 제례에 의존하는 민간신앙의 이중구조적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²²⁾

그러하여 제주의 풍토가 예나 지금이나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듯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유교적 문화와 함께 신당을 찾는 이들이 면면이 남아 있다. 이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한 제주도민 나름의 자생적 사회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조 서민교회의 한 측면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조 제주도의 경우만을 국한시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투입된 의사의 전달 방법을 보면 감사나 왕명으로 지방에 내려간 관원이 서면으로 보조하는 장계나 관찰사, 어사, 절도사 등이 문서로서 상주^{上奏}하는 계문^{啓聞} 또는 장청^{狀請} 등의 문서에 의한 전달방법이 대부분이며 문서를 통한 하의상달^{下意上達} 방식의 대표적 형식인 상소도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동인이 신하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의 의사전달은 하의상달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은 제주도가 육지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되었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22)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집문당, 1986), 29쪽.

당시 제주도로 온 관원들은 대부분 제주도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토착세력의 도움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은 토착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풍토기』에는 당시 관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탈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우선 『제주풍토기』는 현재 흔히 사용되는 해녀의 다른 용어인 ‘잠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이기도 하다. 이진은 『제주풍토기』에서 잠녀를 미역을 캐는 여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알몸으로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며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해정海汀을 편만遍滿하며 낫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 올리는 데 남녀가 상잡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복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징所徵의 역役に 응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간고艱苦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불렴不廉의 관의 있어 탐오지심貪汚之心이 생기면 명목名目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하기를 수 없이 하므로 1년간의 소업으로써도 그 역에 응하기가 부족하다.²⁴⁾

제주 잠녀들의 상태를 잘 묘사한 대목이다. 미역을 캐 때 잠녀가 발가벗은 몸으로 작업을 하고 또한 남녀가 상잡相雜 즉 서로 섞여 작업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부끄럼을 모르는 모습에 유교적 교육을 받은 이진으로서는

23) 양진건, 앞의 책, 137쪽.

24) 李健, 앞의 책, 81~82쪽. “其中素賤者藿也 採藿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 至五月以前 入海採藿 其採藿之時 則所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鎌浮海 倒入海底 採藿曳出 男女相雜 不以為恥 所見可駭 生蠃之捉 亦如之 如是採取 應官家所徵之役 以其所餘 典賣 衣食 其為生理之艱苦 已不足言 而若有不廉之官 恣生貪汚之心 則巧作名目 徵索無算 一年所業 不足以應其役”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제주 해녀는 근로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보는 관점이 있지만 18세기경만 해도 그들은 전복을 잡아다가 관의 징수하는 일에 응하고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겨우 해결해왔다.²⁵⁾

그리하여 해녀들의 생활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 탐욕스럽고 염치없는 관원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은 거지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보다 못한 이진은 해녀들이 생전복을 채취해 관가에 바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해결하고 있는 그들의 고된 생활과 관원들의 횡포를 기록하여 정책결정의 문제를 고발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일수록 일부 관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며 권력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니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글로써나마 이진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잘못이나 부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의 흑심함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는 덕과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덕과 예로써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기는 덕치주의 사회였다. 덕의 지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따뜻한 애정으로 그 바탕이 되고 덕과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이진은 염치불구한 관원들 모습에 한탄하며 조선사회가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정치와 도덕적인 공동체 정신을 사람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인간은 학문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 없다.”(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라고 하였다. 이 견해는 교육을 삶의 현장에서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학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유교적 교육을 받은 관원들이 자신의 직분을 되찾도록 하는 바람이라 할 수 있다.

25) 양순필, 앞의 책, 231쪽.

사회교육적 측면으로 조선조의 교육지도성을 살펴보면 이는 행정적지도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관직자는 국민의 어버이요 교사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직자가 아닌 재야사람으로서의 향촌 지배계급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의지 즉, 교육지도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다.²⁶⁾ 결국 교육지도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제주도의 경우엔 토호세력은 물론 목민관이나 유배인들로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제주풍토기』에는 조선조 제주도의 교육지도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제주인으로 헌마공신 김만일에 대한 기록이 있다. 김만일은 자신만의 독특한 말 사육 비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김만일의 말은 많아서 수천필에 이르러 가히 셀 수가 없다. 신관이 입도할 때마다 체임 진상마를 김만일로부터 징하여 3년간 외양간에서 기르고 습재하였다가 체귀시에 임하여 진헌한다. …(중략)… 탐관은 진상을 빙자하여 무수히 징하여 전부 사용화하여 버리고 또 준마가 있으면 삼읍의 원님들이 다투어 탈취함으로 좋은 말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은 그 절종을 걱정해서 준마로 취해 감직한 것을 택하여 일부러 눈에 상처를 내어 봉사가 되게 하거나 혹은 가죽과 귀를 찢어서 병신마를 만들어 이것을 잘 보존하여 종마로 삼았다.²⁷⁾

김만일은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말을 1만 마리까지 기르며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헌납하여 3대조까지 참의, 참판에 추증되기도 했다. 『제주풍토기』에서는 그러한 김만일의 이야기와 그가 준마를 종자마로 길러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26)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제주문화, 1991), 177쪽.

27) 李健, 앞의 책, 87쪽. “金萬鎰之馬 多至數千匹 不可紀數 每新官之入去也 首徵遞任進上馬於萬鎰 三年喂養習才 而臨遞時進獻 萬鎰之馬雖多 或乏進上可合之馬 則自官家因家僮徵索 如是而不得 則鞭扑隨之 以至於囚其妻杖其子 無所不至 渠及以爲苦 而若有貪汚之官 則憑藉進上 徵之無類 悉爲私用 馬之稍駿者 輒爲三縣 倅之所爭奪 未有所遺 萬鎰恐其絕種 擇駿馬可以取種者 或盲其目 或割其皮與耳然後 乃能保存其馬 而取種”

있어 사회교육적 측면의 교육지도성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보여준다.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목축업의 어려운 사정과 함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 풍토에 맞는 영농법을 개발하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지혜를 김만일이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김만일의 딸은 광해군 7년(1615)에 대북과 이이첨 등이 영창대군을 강화도에서 죽게 한 것과 인목대비를 폐비하는 것에 반대하는 극언극간의 상소를 올렸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로 유배를 온 간옹 이익과 가족을 이룸으로써 양가(良家)의 전통과 위세를 구축하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제주의 성씨는 다채로워지게 된다. 이익은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문화에 김진용과 고흥진, 문연준과 같은 걸출한 제주문인들을 배출함으로써 제주도의 문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배인들에 의하여 학문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절과 생활방식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더구나 유배인 중에는 석방되지 못하여 일생을 제주도에서 지낸 자와 혹은 도민들과의 혈연관계를 이루어 자손들을 낳은 자도 있었는데 유배인들은 지식인이요 문화인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제주도의 학문발전과 문화향상에 관계되고 공헌되었다.²⁸⁾

2) 기술교육적 측면

기술교육이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면서 쌓아왔던 지식·기능·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²⁹⁾ 조선조 제주도에서 시행되었던 기술교육은 크게 농업관계, 수공업관계로 나누

28)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연구』, 『제주도연구』(1986), 230쪽.

29) 양진건, 『조선조 제주도 기술교육 연구』, 『한국교육사학』(1998), 129쪽.

어 볼 수 있다. 『제주풍토기』에는 제주도의 마정과 목축업, 농업 그리고 어업 등 기술교육적 측면이 잘 나타나 있다.

가. 마정馬政과 목축업

조선조는 제주의 마필이 군사, 외교, 산업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도에 마정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농업관계의 기술교육 가운데 특히 목축기술교육은 마정과 관련된 시안으로 고려조 이래 줄곧 중시되어 온 내용이다.³⁰⁾ 기술교육 중 마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일둔의 마필수馬匹數는 적어도 백여 필에 불하不下하고 목자의 수는 많아도 2·3인에 불과하다. 소위 목자牧子라 함은 말을 맡아서 이것을 목양牧養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름과 가을에 풀이 자라날 때는 말이 운폐의 환이 없으나 한겨울과 춘초春初에 풀이 고사한 때에는 말이 기아飢餓로 죽는 수가 불가승기不可勝紀인 것이다. 치사致死될 경우에는 목자는 즉시 가죽을 벗겨서 관에 납부하면 관에서는 마적馬籍에 기재된 가죽과 빙고하여 모색毛色이 상부相符되어야 그 가죽을 봉납하게 되므로 실마失馬된 것이 재적載籍된 것과 맞추어 보아 혹 차착差錯이 있거나 모피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때는 이것을 퇴하여 봉납하지 않고 그 말을 목자에게 징徵하는 것이니 이것을 동색마同色馬라고 부른다. 목자는 본시 남루한 의복의 극빈자인 만큼 변상할 말을 사는데 힘이 부족하므로 농토와 농우를 탕매하고 또 부족하면 술과 농기구등의 물건들까지도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근히 이를 매납한 후에 만일 또 말이 죽는 때에는 그 목자는 또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마徵馬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³¹⁾

30) 양진건, 앞의 책, 165쪽.

31) 李健, 앞의 책, 79~80쪽. “一屯之馬 少不過百餘匹 而牧子之數 多不滿二三人 所謂牧子者 援馬而爲之牧之者也 夏秋草長之時 則馬無殞斃之患 而如隆冬春初草枯之時 則馬之飢餓而死者 不可勝紀 如有致死之馬 則牧子者 卽割其皮 以納于官 官以馬籍與皮相憑考 毛色相符然後 乃捧其皮 以故失馬載籍 或有毛色差錯 皮毛有損傷之痕 則退之不捧 卽徵其馬於牧子 謂之同色馬 其牧子以懸鶻百結之人 買馬之際 力有不及 盡賣其田與農牛 此而不足 如釜鼎農器等物 無不賣之 僅僅買納之後 馬若又斃則又如是.”

마정이란 고려와 조선 시대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번식시키고 조달하는 정책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말은 교통, 군사,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마정을 대단히 중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주에서의 마정은 고려를 복속시킨 원이 제주에 목장을 설치하고 직접 목호를 파견하여 목축을 담당케 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정벌에 필요한 마필을 조달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방성분야(房星分野) 즉 방목에 적합한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³²⁾

목장관리의 총 책임자는 제주목사이고, 제주관관·정의 현감·대정 현감은 감독관 직책을 겸임하였다. 감독관 밑에 목장 관리의 책임자로 마감과 우감이 있고, 그 밑에 군두 군부가 있으며 다시 맨 밑에 우마 사육을 직접 담당하는 목자들이 있었다.³³⁾ 이것을 보면 제주도 목장과 말의 관리가 무척 조직적이었고 그에 따른 기술이나 지식이 잘 체계화되어 있어 목축 관련 기술교육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의 글을 보면 목자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이 죽으면 목자들은 그 가죽을 벗겨 관청에 바쳤다. 관청에서는 그것을 대조하여 어그러지거나 손상되어 있으면 받지 않고 변상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변상치 못하면 목자들은 책임을 지고 생활도구까지 팔아가며 근근이 살아야 했다. 그러니 그들의 원한이 뼈에 사무쳤을 것으로 보인다. 덕치와 인정을 근본으로 하는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는 성리학적 교육을 받은 이건으로서의 무척이나 부조리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제주풍토기』에는 조선조 제주도의 기술교육 중 목축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2) 양진건, 앞의 논문(1999), 132쪽.

33) 김봉욱, 『제주통사』(세림, 2000), 92쪽.

섬 중에 크고 작은 우미는 겨울·여름을 막론하고 모두 들에서 방목하므로 인가에는 우미분이 없으며, 도민도 본시부터 우미 분을 싸두었다가 밭에 거름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지는 우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한 종을 정하여 목동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우미를 몰고 나가서 아무데서나 먹이고 일모가 되면 한 밭 속으로 몰고 들어와서 종야 매어 놓고 그 분을 싸게 하여 모이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높이 올라온 후에야 다시 방목한다. 매일 이와 같이하여 우미분이 밭 가운데 편만하여 지면 타처로 옮겨가서 그 밭에 분을 받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봄으로부터 가을에 이르도록 행하여진다.³⁴⁾

이처럼 제주 지역의 목축업은 1276년 몽골이 설치한 탐라목장이 효시가 되어 마을 공동 목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오직 제주 지역에만 존재하는 목장 제도다. 이것은 마을사람들이 목장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우미를 방목하는 목축지를 말한다.

제주 지역의 토양은 바람에 잘 날리는 화산회토다. 그렇기 때문에 진압 농법에 필요한 우미 방목을 위해 공동 목장 제도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땅을 밟아주고 척박한 땅에 거름을 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우미분을 이용한 조선조 제주도의 목축기술은 협동의 행위로도 나타나 있다.

그 당시 목장은 도 전역에 걸쳐 있었는데 고득중이 목장을 한라산 산장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여 10소장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소장부터 6소장까지는 제주 목에 속하며 7·8장은 대정현, 9·10소장은 정의현에 속하였다.³⁵⁾ 목장은 산장이라 칭하고 침장針場·녹산장鹿山場·상장上場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 동가마장을 경계로 하고 서쪽은 남원읍 영천을 경계로 하였으며 북쪽

34) 李健, 앞의 책, 86쪽. “島中大小牛馬 無論冬夏 皆放之墅而牧之 故人家無牛馬糞 島人素不解載糞糞田之理 如富人牛馬多者 則定一奴爲牧童 驅其牛馬而隨處牧之 日暮則驅入一田中 皆捉而繫之 達夜不放 以聚其糞於其中 至翌日日後 始爲放牧 每日如是 及牛馬之糞遍滿田中 則移往他田 又糞其田 如是者自春至秋.”

35) 양진건, 앞의 책, 166쪽.

은 조천읍 교래리 다래오름을 경계로 하는 광활한 지역이었다.³⁶⁾

나. 농업

『제주풍토기』의 기록에 등장하는 농업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감자에는 중명이 매우 많다. 감자·유자·동정굴·금굴·당금굴·황굴·산굴·유감·당유자·청굴 등이 있고, 그 외의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다. 본도의 성중에는 양처에 과원이 있는데 감굴을 심고 백성을 뽑아다가 지키게 하는데 이를 과원직이라고 이르며, 이 과원의 소산은 진현에 쓴다.³⁷⁾

여기에서는 당시 제주에서 재배된 채소에 대한 기록과 조선시대에 중국에 조공하려고 각 도에서 받아들이던 공물에 관한 진현 기록이 쓰여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이미 유자, 금굴, 황굴, 산굴, 당유자, 청굴 등 여러 종류의 굴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굴은 삼국시대 탐라국 시절부터 백제와 신라에 공물로 진상되었던 과일이다. 그 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감굴 진상은 계속됐고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됐던 1894년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부담스러운 의무는 해제되었는데 굴 진상은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까지 20회에 나누어 10일 간격으로 진상이 이루어졌다. 굴이 서울에 도착하면 임금은 신하에게 나누어주면서 황감제라는 과시를 베풀기도 하였다.³⁸⁾ 그러나 흉작인 해에도 어김없이 일정한 양을 진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제주목사나 관리들도 중앙에 바치는 뇌물로 쓰기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였다. 하여 민가에서는 굴나무의 재배

36) 양진건, 앞의 책, 168쪽.

37) 李健, 앞의 책, 86쪽. “柑子種名甚多 有柑子, 柚子, 洞庭橘, 金橘, 唐金橘, 黃橘, 山橘, 柚柑, 唐柚子, 青橘 不可盡知 本島城中兩處有果園 所以種柑橘 發民爲直 名曰果園直 以爲進獻之用.”

38) 김봉옥, 앞의 책, 98쪽.

를 기피하고 심지어 살아 있는 나무에 약을 뿌려 고사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래서 굴 진상과 관련한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따른 식생활 재료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다.

섬 중에 장기로 찌는 듯 더우므로 가슴이 답답하고 토지는 습열하므로 겨울에도 그리 차지 아니하고 내와 못도 얼지 않는 까닭에 얼음을 저장할 수 없으며 순무와 영초 파와 마늘 등은 깊은 겨울에도 밭에 둔 채로 아침 녘 캐어다가 쓰게 된다.³⁹⁾

예로부터 제주도는 위도 상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가 뚜렷한 곳이다. 그래서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아 흙은 물론 내와 못도 얼지 않아 식생활 준비에 있어 밭에 채소들을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순무, 영초, 파와 마늘 등을 캐어와 먹는다고 하고 있다.

섬 가운데 토지는 모두 사적이므로 전무가 심히 척박하여 황두가 소두모양으로 작고 그 빛은 검으며 또 소두의 알맹이 크기는 녹두 정도인데 그 빛은 황두와 같이 희고, 적두는 전혀 없다. 보리는 잘 건설되지 않으므로 마치 가라지나 피모양을 하고 있다. 논은 원래부터 없는 까닭에 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쌀인바 관가에서는 매년 쌀을 양호 지방에서 사서 선박으로 운반해 와서 관공과 적객의 방료에만 쓰고 있으며 혹은 전미로서도 이에 공급하고 있으나 가장 곤란한 것은 쌀인 것이다.⁴⁰⁾

조선조 제주도의 농업은 땅이 화산토라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자연히 논농

39) 李健, 앞의 책, 85쪽. “島中瘴氣蒸鬱 土地濕熱 冬不甚寒 川澤不冰 不得藏冰 如蔓菁靈草蔥蒜之屬 雖深冬 置之田中 朝夕採用.”

40) 李健, 앞의 책, 86쪽. “島中土地 皆是砂磧 田畝甚瘠 太如小豆之狀 而其色皆黑 小豆如菜豆之大 而其色皆白 如黃太赤豆絕無焉 年麥不實 如稗稗之狀 畚則元無 故島中所貴者 最是大米也 自官家年年買米於兩湖之境 舡運以來 只用於官供 謫客放料 亦或以田米給之 甚苦者此也.”

사보다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땅을 말들의 목초지로 이용하게 되면서 곡식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쌀이 무척 귀하였다. 가뭄, 태풍, 홍수 등이 온다면 흉년이 들기 일쑤였고 굶어죽는 이가 허다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쌀을 육지에서 선박으로 운반하나 백성들은 맘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배고픔의 고난을 겪는 당시 제주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다. 어업

다음은 당시 제주도의 해산물을 소개한 부분이다.

해산에는 단지 생복·오적어·분곽·옥두어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⁴¹⁾

제주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는 말리지 않은 전복 즉 생복과 오징어, 품질이 양호한 미역 그리고 옥돔과의 물고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종의 어류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섬 중에 천택川澤은 육지와 같이 깨끗하지를 못하며 또 소산의 어족도 없고, 단지 은구어뿐이다. 이것도 관가에서 사사로이 잡는 것을 엄금하여 은구어를 잘 낚는 은어장이라는 사람을 시켜 이를 잡아다가 전부 관가에 납입하므로 섬 중에 사는 백성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대개 본도의 수령은 천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의의를 알지 못함이니 또한 한탄스러운 일이다.⁴²⁾

41) 李健, 앞의 책, 86쪽. “海産只有生鮓, 烏賊魚, 粉藿, 玉頭魚等數種 又有名不知數種之魚外 并無他魚.”

42) 李健, 앞의 책, 86~87쪽. “島中川澤 不似陸地之淨冽 亦無所產之魚族 而只有銀口魚 自官家嚴禁私捉 擇定善漁者 名之曰銀魚匠 逐日捉之 盡納於官家 島中居民 未有知其味者 此由於爲本島倖者 率皆武人 殊不知川澤共民之義 亦可歎也.”

제주도에 내와 천은 있으나 육지와 같이 맑지 못하고 잡히는 어류도 없다. 단지 은구어 뿐이었다. 이러한 은구어는 어릴 때 바다로 나갔다가 하천으로 돌아오는 어류이다. 또한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고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생성된 하천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어류였다. 그러나 잡히는 대로 전부 관가에 바쳐야 하니 백성들은 맛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리들조차 내와 천을 독점하여 있으니 이 또한 널리 백성을 위하는 덕치와 인정의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은 교육을 받았던 그가 볼 때 무척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는 민산(民産)과 백성들의 생산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했으며 유교의 왕도정치사상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⁴³⁾ 이때 백성들의 생산물들은 지배체제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경험적 노동의 산물이었다. 비록 그 노동의 모습이 단순하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개인의 능숙함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했던 백성의 노동의 장(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⁴⁴⁾이 될 수도 있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협동적 집단행동 또는 조직적 협동행위라는 교육행정의 협동행위론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조의 제주도 농업기술교육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진전된 양식의 절차적 행위가 개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즉 노동교환의 형태가 일종의 두레 양식으로 나타나 공동체의 협동 활동으로 일련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우는 자체 내의 기술교육이 더욱 활발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의 환경적·정치사회적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⁶⁾ 즉 제주만의 독

43) 양진건, 앞의 책, 164쪽.

44) 양진건, 앞의 책, 165쪽.

45) 양진건, 앞의 책, 169~170쪽.

46) 양진건, 앞의 책, 165쪽.

특한 풍토가 제주의 자생적 교육 및 유교적 교화를 통한 교육에 면밀히 영향을 끼친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여 보았다. 조선은 유교정신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국시로 삼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도 유교가 강조되었다. 원자 및 종실 자제, 백성들의 교육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제주풍토기』의 저자 이건도 종실 자제의 교육을 받은 왕족이었으나 역모에 연루되어 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그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유배오게 된다.

당시 제주도는 중앙의 성리학적 영향력이 미흡했던 곳이었다. 이건은 낮은 제주도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처절해 하면서도 유교적 교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배인의 신분이었으나 유배지 제주의 풍토와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제주풍토기』를 남기게 된다.

유배라는 형벌은 한 유배인의 일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배로 인한 외로움과 절망감은 자기 상실의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배인들이야말로 문화전달의 중요한 메신저였다. 조선조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이자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자 또한 학자였다. 그렇기에 그들이 유배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학자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런 신분적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유배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유배인들은 자신의 인격수양은 물론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⁴⁷⁾

이건도 역시 오랜 제주도 유배의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

을 통해 중실자제의 교육을 받은 왕가의 일원으로서 지방민들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낯선 풍토에 적응해 나가며 힘들었지만 「제주풍토기」라는 기록을 남겼고 후손들에게도 조선조의 안녕을 위해 충효와 절을 강조하며 스스로 극복해 나가며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제주풍토기」에는 17세기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와 민속, 기후, 목축상황과 농사, 풍속과 삼성신화, 김만일의 일화, 해녀의 풍속, 관의 횡포와 유배생활 중 경험하고 느낀바가 기록되어 있다. 풍토지로서는 왕족이 남긴 최초이자 대표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주풍토기」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과 제주도 교육을 사회교육적 측면과 기술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17세기 제주도는 무속의 교육문화가 유교교육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교육적 측면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하정상달의 형식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욕스럽고 염치없는 관원 때문에 고된 생활을 하는 제주민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정책결정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조선조의 교육지도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결국 향촌의 특성상 목민관이나 유배인 그리고 제주 토호세력들이었다. 「제주풍토기」에는 조선조 제주도의 교육지도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 현마공신 김만일의 말 사육 비법과 자연 풍토에 맞는 영농법을 개발을 소개하였다.

기술교육적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마정과 목축업, 농업과 어업 측면으로 살펴 보았다. 제주의 마필은 군사, 외교, 산업면에서 중요성이 커서 마정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노동의 장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진의 「제주풍토기」에는 17세기 제주의 풍토와 교육 모습은 물론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통하여

47) 양진건, 앞의 책, 521쪽.

제주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대 제주인의 삶과 제주 교육의 정체성 이해와 후일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 | |
|----------------------------|--------------------------------|
| • 2012. 05. 18 : 논문투고 | • 2012. 06. 01 ~ 06. 11 : 심사 |
| • 2012. 06. 15 : 수정완료 후 제출 | • 2012. 06. 18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金 淨, 『濟州風土錄』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탐라문화연구소, 2012)

신창호, 『유교의 교육학 체계』(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양순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 소고」, 『한국언어문학』 21(1980)

_____,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_____, 『제주유배문학연구』(제주: 제주문화, 1992)

양진건,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회』 24-2(2010)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 21(1999)

_____,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연구」, 『제주도연구』 3(1986)

_____, 「조선조 제주도 기술교육 연구」, 『한국교육사학』 20(1998)

_____, 『제주교육행정사』(제주: 제주문화, 1981)

_____, 『제주유배문학자료집』(I)(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李 健, 『濟州風土記』

정옥자, 『우리선비』(현암사, 2002)

정인승, 『한국어대사전』(현문사, 1976)

秋本吉郎校注, 『풍토기』(동경: 나미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1958)

和辻哲郎, 『풍토』(동경: 이와서점[岩波書店], 1935)

The Educational Meaning of (Gyu Chang) Lee Geon “Jeju Poong-To-Gi”

Kim, Yu-ri

(Jeju National Univ.)

This research examines the educational structure and layers in (Gyu Chang) Lee Geon’s “Jeju Poong-To-Gi” in order to explore its educational meaning. Lee Geon received an education for the Royal family in Chosun dynasty where realization of Kingcraft politics was a national policy. He recorded the cultural climate and social conditions on “Jeju Poon-To-Gi”. When he was sent into exile in Jeju, the place was under the weak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However, he set forth his educational will in Neo-Confucianism. So, “Jeju Poong-To-Gi” reveals the educational meaning which enables us to review the status of Jeju in the 17th century from the social and technical education perspective.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climate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Jeju back then through “Jeju Poong-To-Gi” will be critical for us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Jeju education.

Key word

: (Gyu Chang) Lee Geon(葵窓 李健), Exile to Jeju, Jeju Poong-To-Gi(濟州風土記), Educational Guidance, Soci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